

시인의 마을



어머니처럼만 살겠습니다... 이별, 그리고 기억

어머니는 백사십팔 센터, 작은 천사였습니다
구십삼 년, 모진 풍파에서도 흔들리지
않으셨습니다
무섭고 피해 갈 수 없는 길을 가셨습니
다
요양병원 창밖을 바라보며, 얼마나 가족
의 온기를 그리워했을까요
십 년을 훌쩍 넘긴 여행길, 짐작하기도
어렵습니다
어쩌다 한 번, 다녀가는 못한 자식을 잊
지 않으셨습니다
바쁘다는 핑계 아닌 이유가 많기도 했습
니다
그래서 어머니를 어쩌다가, 가끔, 뇌리
요양병원에 들렀습니다
그때마다, 전주, 그대, 셋째 아들을 외치
며 안아 주셨습니다
아직도, 두 손 잡아 주시던, 당신의 체온
이 남아 있습니다
어머니는 부잣집 귀한 소녀로 태어나,
일제강점기를 사셨습니다
어린 나이에, 가난한 아버지 만나 고생
보따리만 늘어 갔습니다
다시 울 수 없는, 하늘나라 가는 그 소천
의 길이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
호강 한 번 못 해보시고, 떠난 그 길에 속
상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
평생 꽃 한 다발, 안기지 못한 못한 자식
입니다

항상 웃음으로, 너그러움으로, 반기는
당신이 있습니다
권여섯, 행복이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
망울망울 꽃망울, 활짝 웃음 넘치는 그
길에서
아버지를 만나 행복하길 기도합니다
꽃 속의 꽃은, 누가 뭐래도 어머니입니
다
그 꽃을 모두 아우르는 세 글자는 위대
합니다
발그레 웃으며, 셋째 아들 손잡으시던
엄니,
이제 가면 언제 오시렵니까
하늘나라 떠나는 뒷모습만이 가슴을 후
벼 줍니다
있는 듯 없는 듯, 그렇게 살겠습니다
당신이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
걱정 없이 살아 낸 어머니를 기억하겠습니다
부족하지만, 눈물바다는 이제 그만하겠
습니다
소리 없이, 그렇지만 약하지 않은, 셋째
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
부끄럽지 않은 삶의 여정을, 어머니의
그 길을 따라 걸어가렵니다
어머니처럼만 살고 싶습니다

- 박여범 시인,
'어머니처럼만 살겠습니다' 전문

시시를 담다

전화쟁이 올린다. 익숙한 반쪽이다. 어머니를 모시는
큰형님의 전화다. 통화 내용은 간단하다. 어머니가 음
식을 잘 넘기지 못한다는 소식이다. 어르신 식사
못 하시면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떠오른다. 늦
기 전에 밥고 오리라 마음먹는다. 다음 날, 다시 전화
가 올린다. 그가 전해준 소식은 어머니 부고였다.
아버지 소천 후 20년을 더 살다 가신 어머니다. 그렇
지만 자식으로서 안타까운 것이 있다.
이십 년의 절반을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보낸 것이
다. 얼마나 힘들었을까, 치매로 자식도 알아보지 못했
던 그녀의 고통진 삶에 마음이 아프다. 늘 아픈 손가
락이었던 자식이었다.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지 못했
다. 이런 내가 미워 어찌할 수가 없다. 이러한 어머니
가 어디 한두 분이시겠는가?
모든 자식은 똑같다. 이별의 아픔이 있고 나서야 깨
달을 정도로 머리석기만 하다. 어머니를 생각하면 따
뜻하고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몽롱함이 있다.
그런 어머니처럼만 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생겼
다. 백오십이 되지도 않는 작은 몸으로 거센 파도를
이겨낸 어머니가 미치도록 보고 싶다. 어머니가 그리
워 울려대본 영정(影幀)**이 멀어져만 간다.

**영정(影幀): 제사나 장례를 지낼 때 위패
대신 쓰는, 사람의 얼굴을 그린 족자



박여범

용북중학교 · 시인
문학박사 · 문학평론가

사설

전주출신 윤정현 블루시그널 대표

하루의 기분을 스스로 기록하
는 '일기 애플리케이션' 이 나
왔다. 전주 출신 윤정현(25,여)
'블루시그널' 대표는 일기 앱
'하루공'을 만든 장본인이다.
'하루공'은 일상 속에서 스스
로 자기 기분을 알아챌 수 있도
록 해 주는 서비스다. 기분을 5
단계로 나눠 기록하고, 날씨와
대인관계, 식사, 직장생활, 취미
등 활동을 체크한다.
웃는 표정에서 슬픈 표정까지,
완두콩 모양의 다섯 가지 얼굴
중 하나를 선택하기만 해도 그
날의 일기 작성이 마무리된다.
그날 있었던 일을 사진으로 남
기거나 짧은 글로 기록하는 것
도 가능하다.
캘린더에 기록된 매일의 컨디
션을 기반으로 월, 년 단위의
기분 추이와 분포를 확인할 수
있다. 평소 어떤 감정을 많이
느꼈는지, 무슨 활동을 자주 하
는지 순위를 매기는 것도 가능
하다.
하루공은 기쁨 · 보통 · 우울
등을 나타내는 다섯 가지 '공' 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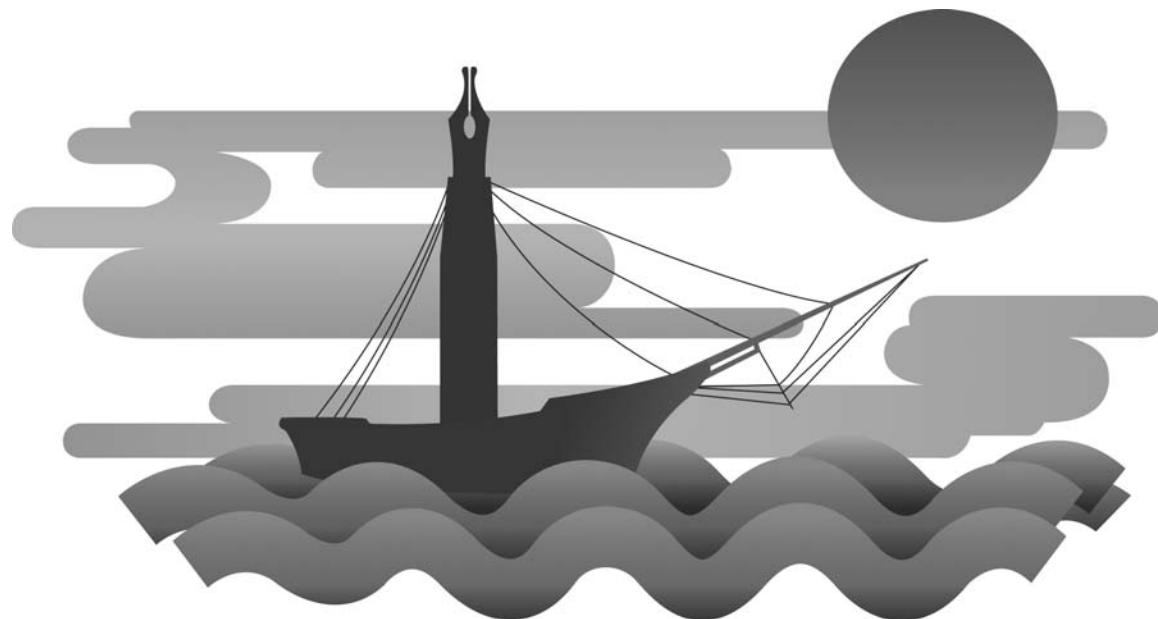
양 아이콘 선택만으로 기록된
다. 사용자의 90% 이상이 여성
이고 15~25세 연령층이 60%를
넘는다.
윤정현 대표는 고교생 때 이미
'영상 제작 기술' 스타트업을 세
웠을 만큼 창업에 관심이 많았
다. '블루시그널'은 서울대 동
기·선후배 3명과 함께 2019년
새운 두 번째 창업이다.
원래 1인 가구를 위한 반려 펠
리 로봇 개발에 나섰다. 그러나
기술적 한계를 느낀 그는 차유
의 가치를 소프트웨어(SW)로
구현할 수 있음을 깨닫고 방향
을 바꿨다.
하루공 사용자는 170여 개국 5
만 명 정도다. 약 80%가 해외
이용자다. 프리미엄 상품을 이
용하는 유료 구독자만 1만5천
명에 달한다.
글로벌 브랜드 Daily Bean(하루
공) 서비스는 8개 국어로 제공
된다. '하루공'은 지난해 말 일
본·프랑스에서 구글이 선정하
는 '올해를 빛낸 일상생활 앱'으
로 뽑히기도 했다.

코로나 이제는 엔데믹 시대

최근 새롭게 출시하는 가전제
품에 살균 기능을 기본으로 탑
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.
코로나19 상황이 완전한 종식이
아닌, 엔데믹(공통병)으로 자리
잡을 것이라 예측 때문이다.
일부 업체는 아예 살균기를 신
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한다. 로
웨이는 최근 출시한 '노블 정수
기' 4종 모두에 살균 기능을 기
본으로 탑재했다. 노블 정수기
에 적용한 '스마트 울케어 시스
템'은 자외선(UV)을 이용해 모
든 유로를 자동으로 살균할 수
있다.
여기에 평소 파우셋(물이 나오
는 부분)이 숨겨져 있다가 사용
할 때만 노출하는 '스마트 모션
파우셋' 기능 등 위생을 한층 강
화했다. 아울러 파우셋이 들어
가면 자외선으로 3초 동안 살균
을 진행한다.
로웨이는 주방 환경과 라이프
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
록, 노블 정수기 시리즈를 총 4
종으로 출시했다. 청호나이스는
지난해 선보인 '자가 관리 정수
기 셀프' 판매량이 1년여 만에

누적 4만대를 돌파했다.
청호 자가 관리 정수기 셀프는
유로와 코크, 필터까지 자동 살
균하는 것이 특징이다. 살균 기
능을 작동하면 살균수가 역방향
으로 투입, 유로를 거쳐 필터
속까지 전달된다. 이를 통해 필
터에 남아있는 이물질까지 살균
할 수 있다.
아예 살균기를 출시하는 사체
도 있다. 현대렌탈케어는 공기
살균기 '플라로듀오'를 출시하며
위생가전 라인업을 확대했다.
공기 살균기는 미세먼지를 걸
러내는 공기 청정기와 달리 바
이러스와 세균, 곰팡이 등을 없
애준다.
현대렌탈케어는 공기 살균기
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이엘더블
유와 손을 잡았다.
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지
않고 매년 독감처럼 번이가 발
생할 조짐이다. 엔데믹 상황에
따라 과거보다 집에 있는 시간
도 길어질 전망이다. 청결한 집
안 환경을 위해 살균 기능이 있
는 가전제품을 선호하는 것은
당연한 일이다.

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.



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

"더 좋은 신문, 더 사랑 받는 신문,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"을 위해
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
'전북 최고의 신문'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
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
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.

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
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
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
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

인간중심 · 도덕중심 · 지역중심

전주매일